

1906년 설립, 118주년 맞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을사조약(1905년)과 고종 퇴위(1907년) 사이, 아주사 부흥 운동이 일어난 1906년 설립, 네 시대를 살아 온 교회

118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박일영 목사)가 창립기념예배를 12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이 교회는 1906년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장로교회로, 대한제국 말기에 일제가 강제로 외교관을 빼앗아간 을사조약(1905)과 일제가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킨 해(1907) 사이에 설립됐다.

‘사랑 & 사명 & 따름’(요 21:17-22)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박일영 목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음식을 하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었다. 주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제자에게 계속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물, 직업, 하고자 하는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

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은 SNS의 시대로 자기만을 아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인간화가 확대되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이럴 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형편에서 나보다 약한 어린 양을 먹이고 보살피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118주년을 맞으면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힘쓰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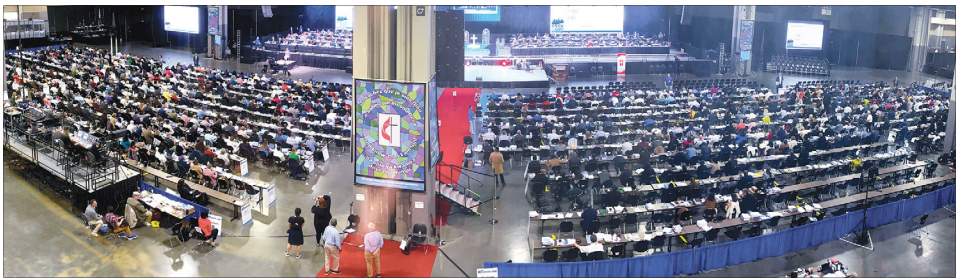
박일영 목사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대한제국 말기-일제강점기(1910-1945)-미군정기(1945-1948)-대한민국(1948-현재)에 이르는 네 시대를 살아온 교회로, 미국 역사에서는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난 해(1906)에 첫발을 내디디며, 제 1차 세계대전(1917), 이민규제법(1921), 경제대공황(1929), 태평양전쟁(1941-1945), 6.25 한국전쟁(1950), 베트남전쟁(1955) 등의 시기에 교회의 초기 50년의 역사를 살았다”면서 “격변과 혼란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소멸하지 않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온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118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박일영 목사)가 창립기념예배를 5월 12일에 드렸다. 이 교회는 1906년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장로교회로, 을사조약(1905)과 일제가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킨 해(1907) 사이에 설립됐다. ©기독일보

UMC 한인총회 “변화 있었지만 신앙의 양심 수호 가능해져”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주제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두 주간 살렷에서 열렸다. ©UM News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최근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안수 허용 등 성소수자 관련 결정들을 한 가운데, 이 교단 한인총회가 “변화는 있었지만,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전통주의를 지켜갈 수 있게 됐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한인총회는 11일 UMC 총회 이후 한인연

합감리교회의 입장을 전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UMC)가 동성애(LGBTQ)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이를 지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해질지 모르는 역차별을 막기 위한 수정법안(Amendments)도 함께 통과시켰다”고 했다.

한인총회는 지난 UMC 총회가 열리기

전 관심사항은 △지역화(Regionalization)와 △동성애법안이라고 알려진, LGBTQ에 대한 금지조항을 과연 뺐 것인가였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역화는 미국과 아프리카, 유라시아, 유럽, 필리핀을 아우르는 큰 교단인 UMC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교단이 운영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됐고, 각 지역별로 각 선교구의 상황에 맞게 선교와 사역 그리고 장정에 이르기까지 독립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 안건”이다.

이어 “동성애에 대한 안건은 1972년 이후에 포함된 ‘동성애 금지조항’을 빼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1972년 이전 장정으로 돌아가자는 진보진영이 40년간 주장한 내용”이다.

이 두 안건은 이번 총회에서 모두 통과됐

다. 다만 “교회의 결혼예식 집행 결정은 담임목사에게 달려 있다. 어떤 성직자도 어떤 경우에도 연합이나 결혼 또는 축복을 제공하거나 수행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없다. 모든 성직자는 결혼 또는 결합 주례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의 양심을 행사하고 지킬 권리가 있다”는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한인총회는 “UMC가 동성애 금지조항을 뺐 것은 2015년에 미 연방정부에서 통과된 ‘성적취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책임으로 UMC 안에서 이런 차별적 언어(Discriminatory language)를 장정에서 빼기로 하고 이를 이번 총회에서 결정했다”며 “이에 대해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알린다”고 했다. → 6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셀비의 감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 국내이비사 USA 이사장
 (현) 남가주 교외지역의 고문 변호사
 (현) 제미발행가협고문 변호사
 (현) 중부상경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UMC 동성애자 안수 허용, 성경 벗어난 순간으로 기억될 것”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가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의 동성애자 목사안수 허용에 대해 “이번 사건은 현대 교회가 성경을 벗어나 인간 위주로 흘러가 버린 심각한 실수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일보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가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의 동성애자 목사안수 허용에 대해 “이번 사건은 현대 교회가 성경을 벗어나 인간 위주로 흘러가 버린 심각한 실수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류 목사는 그가 속한 예장 합동측의 기관지인 ‘기독신문’ 온라인판에 13일 실린 ‘UMC 동성애자 목사안수 허용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논단’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나아가 이번 총회에서 밝힌 ‘차별적 언어의 삭제’는 지난 교회사에 비춰볼 때, 머지않아 ‘성경적 진리의 삭제’로 다가올 수 있다. 성경의 진리가 무너지는 곳에 교회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도 밝

혔다.

류 목사는 “성경의 진리를 떠나 일어난 교회의 부흥이 있었던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삶에 담아내지 않고 경험한 회백이 있었던가!”라며 “지난해 ‘미국 교단의 쇠퇴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UMC는 32%의 쇠퇴를 보였다.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는 대부분 교단이 급격한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회의 위기를 염려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처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미국장로회(PCA)는 지난 30년 동안 100%가 넘는 성장을 보여줬다”며 “성경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외쳤던 존 칼빈의 가슴을 다시금 품어야 할 때”라고 했다.

또한 “한 책의 사람’(homo unius libri)으로 불릴 만큼 성경을 사랑했던 요한 웨슬리의 마음으로 진리에 근거해 시대를 분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예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성경, 부활의 권능이 담긴 성경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살아날 때 교회도 영혼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UMC는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총회에서 지난 40년 동안 금지해온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규정을 대의원 692명의 압도적 찬성과 51명의 반대로 삭제했다.” 김진영 기자

복음중심 설교, 복음중심 목회를 지키라!



2024 목회 세미나가 오는 6월 4일(화) 오전 10시에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개최된다. ©gbc, MiCA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목회세미나’가 6월 4일(화)에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주소: 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에서 개최된다.

캐나다 그레이스한인교회의 박신일 목사가 ‘복음 중심의 설교자’라는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2부 순서로 세미나를 이끈다. 박신일 목사는, 2003년 그레이스한인교회를 개척해 지난 20년 동안 밴쿠버에 여섯 개의 분립 교

회를 세우고 한국에 한 개의 교회를 개척했으며 <말씀 앞에 머물다>를 비롯해 여러 저서를 남겼다.

MiCA의 대표 디렉터 이상훈 총장(AEU 미성대)은 “MiCA는 건강하고 본질적인 교회 회복을 위한 교회들의 연합 운동을 지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다양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통해 지역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컨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해 왔다. 박신일 목사는 탁월한 목회자이자 설교자이고 그 영향력 아래 그레이스 한인교회는 북미지역을 대표하는 건강한 교회

로 우뚝 섰다. 이번 세미나는 복음중심 설교와 목회를 통해 사역 갱신을 이루고 싶은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소수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박신일 목사의 설교론과 방법론을 나누고 설교자들이 가진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미주복음방송의 사장 이영선 목사는 “이민교회의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의 방향이 더 선명히 제시돼야 하는 만큼, 복음중심 설교가로서 본이 되는 박신일 목사를 모시게 돼 기대가 된다. 미주복음방송이 이민교회와 이민성도들의 영적갱신과 부흥을 위해 쓰임 받는 일에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착순 4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5월 28일 화요일 오후 6시이다. 신청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kgbc.com)나 QR Code, 전화 (714-484-1190)로 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일시: 6월 4일(화) 오전 10시~ 정오
문의:미주복음방송(714-484-1190).

제1회 풀러선교 음악회 사랑의빛 선교교회서

풀러선교학박사동문회(회장 김권수 박사)가 제1회 풀러선교 음악회(준비위원장 쉰니 김 박사)를 오는 6월 9일(주일) 오후 5시 30분에 파세디나에 있는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에서 개최한다.

우크라이나의 이훈우 선교사(풀러 선교학박사 동문)와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이번 음악회에는 찬양사역자 이선행(제즈피아니스트), With John Park, (Electric Bass) Randy Kim Band, 조영석 외 CCM singers, 김은정(수어찬양), 아모스 이(사회 및 헌금) 등이 출연한다.

음악회 1시간 전부터 간단한 간식 및 음료가 제공되며 캘리그래피도 즉석에서 만들어 준다.

풀러선교학박사동문회는 이번 음악회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문들과 협력하는 사역을



제1회 풀러선교음악회 ©풀러선교학 박사 동문회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미주 행복한 커피 학교와 글로벌 힐링 문화협회에서 협력한다. 이날 모금된 헌금은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선교 지원에 사용된다.

문의: (626) 437-0045(이훈우 박사), 김민선 기자

좋은비전교회 가정 세미나

오렌지카운티 라하브라 지역에 위치한 좋은비전교회(최준우 목사)에서는 ‘함께 성장하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교회 본당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주장신대의

강정자 교수와 고종필 교수가 강사로 선다. 강정자 교수는 5월 22일(수) 저녁 7시 30분에 <세배별 소통 및 다음세대 살리는 교육부 사역>에 관해서, 고종필 교수는 29일(수) 저녁 7

시 30분에 <가정과 믿음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한다.

한편, 6월 11일~12일까지 설립 5주년 기념 말씀 콘서트를 연다.

주소: 1601 West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문의: 714-482-3649, 714-482-3649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강사&일정



세대별 소통 및 다음세대 살리는 교육부 사역

강정자 교수



가정과 믿음 형성의 중요성

고종필 교수



2024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70대 할머니의 노트 속엔,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남가주 어버이 주일 설교 메시지

지난 주말, 남가주 거리는 핑크 빛,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마더스 데이 꽃다발, 꽃바구니가 가판대 위에 가득하고, 프리웨이 입구에도 꽃을 파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멀리 계신 이민자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이를 이미 떠나보낸 이들에게 마음이 시린 날이었으리라.



남가주사랑의교회 노창수 목사.
©Youtube screen shot

남가주 사랑의교회 "하나님을 닮은 사랑"

남가주 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마 22: 37~40)이라는 주제로 부모님의 사랑을 묵상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다. 무엇을 닮았는지 아는가? 부모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 부모님은 자식이 불치병에 걸리면 그 자식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 수로보니게 출신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귀신 들린 딸을 고쳐 달라고 간청했다. 예수님은 모질게 거절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끝까지 병을 고쳐 달라고 청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론 및 전문 마케팅 조사기관인 폴레버(pollever)가 전국 1,13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가 있다. 언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까? 68.1%, 861명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 주지 못할 때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부모님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건 없이 어머니를 공경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 그러려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잠언 15장 4절) 돌 하나가 뼈를 부러뜨릴 수 있듯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자식의 성숙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기도 하고 낙담을 주기도 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힘을 빼기도 한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 가야 한다.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실린 글이 있다. 나이가 70이 되신 할머니가 자살했다. 경찰은 자살의 원인을 할머니의 작은 수첩에서 발견했다. 할머니의 수첩에는 365일 동안 매일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양로 병원에 가면 1년 내내 찾아오는 자녀가 없어서 그곳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계신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뵙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어머니 손 한 번 더 잡아 드리고 어머니께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된다."

그는 필라델피아 이스턴 칼리지 사회학 교수이자 목사인 토니 캠프로 (Anthony Tony Campolo)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가 2학년 때 그가 살던 집은 도시 한복판에 있었고 건물목이 많아서 그의 어머니는 옆집에 사는 누나에게 용돈을 주어서 아들과 함께 등교를 시켰다. 그런데 아들은 옆집 6학년 누나와 학교 가는 것이 장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혼자 학교 가겠다고 우겼고 간신히 어머니 허락을 받은 그는 그때부터 혼자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집안 모임에서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인 소년이었는지 자랑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네가 초등학교를 혼자 다니겠다고 독립을 선언하고 자존심도 세워줬지만 나는 그때부터 2년 동안 네가 학교를 갈 때 몰래 숨어서 너를 따라 학교에 갔고 네가 학교에서 귀가할 때 모퉁이 뒤에 숨었다가 너를 따라 집에 왔단다. 혹시 네가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이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그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가? 조건 없이 어머니를 더욱더 공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Youtube screen shot

은혜한인교회 "꼭 본 받아야 할 어머니"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어머니들의 이름이 있다.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했다. 간절한 기도는 응답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했다. 서원기도는 배수진을 친 헌신의 기도이다. 기도는 참 강력한 힘이 있다. 세 번째, 그가 오래 기도했다. 즉,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다. 나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전쟁으로 전국이 황폐해진 시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 마음에 온통 자식 생각밖에 없는 어머니가 강력한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니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였다. 엘리제사장으로부터 독주에 취했다고 책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기 기도제목은 그에게 말하고, 그로부터 축복기도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말하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그 평강으로 응답이 온 것이다."

"한나는 약속대로 서원을 갚는다. 믿음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귀하게 키워 주신다. 그리고 사무엘 역시 기도의 종이 된다(사무엘상 12:23).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에게 계승된 것이다."



얼바인온누리교회 박신웅 목사.
©Youtube screen shot

얼바인 온누리교회 "축복을 약속하는 계명"

얼바인 온누리교회 박신웅 목사는 레퍼 비와이(BewhY)의 "엄마도 소녀였습니다"라는 곡을 직접 부르며 설교를 시작했다.

"그대는 엄마이기 전에 작은 꿈을 가슴에 품던 소녀, 그대는 엄마이기 전에 자신의 삶을 살길 원한 소녀, 그대는 엄마이기 전에 여자로 걷기를 원한 소녀, 나의 엄마이기 전에 그대 이름이 불리기를 원한 소녀, 당신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자는 척 하면서 잠갔던 방문, 같은 반찬이 지겨워 내가 외면했던 그대가 차린 식탁은, 나대신 당신의 외로움이 마주앉아 빈 자리를 채우네. 가득 내 손을 따스히 포개던 커다란 당신의 손. 이젠 세월 속에서 작아진 그 손을 먼저 잡은 적이 없네 나는."

그는 "인생을 살다 보면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우리의 삶에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있다"며 "십계명의 제5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에 특별한 점이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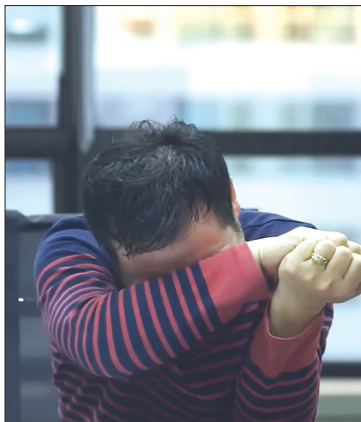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다른 십계명에는 특별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는데 5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될 것이라는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신다"

"점점 아기처럼 변해가는 어머

니를 향해서 잔소리가 늘고 어머니보다 내가 세상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보다 내가 이 시대를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향한 존경심이 멀어져 간다."

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는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는 것(잠 23:25)"이라고 했다.

"오래전 KB 광고가 있었다. 아이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다는 전제 속에서 40대 중년 남성들을 한 명씩 한 방에 모아서 설문 조사를 하기 시작한다. 자녀들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핸드폰에 자녀들과 찍은 사진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잠잘 때 마지막 바라봤던 때는 언제이고 자녀들에게 보냈던 때는 언제입니까? 아빠들이 기분 좋게 답변을 이어간다."



'하늘 같은 든든함, 아버지' 광고 장면 ©KB금융

"그런데 갑자기 질문지가 바뀌기 시작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대상이 바뀐다. 아버지의 사진이 지갑에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마지막은 언제이고 아버지의 잠든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때는 언제입니까? 질문 속에서 40대 한국의 중년 남성들이 눈물을 터트리며 오열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하지만 자식 챙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충분히 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은 아닌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 주디 한 기자

가정의 달 SPECIAL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Ioniq 5 ONLY)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Convenience AWD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 5 SE RWD

NEW 2024 HYUNDAI Ioniq 6 SE RWD

\$10,000 Lease Cash Availabl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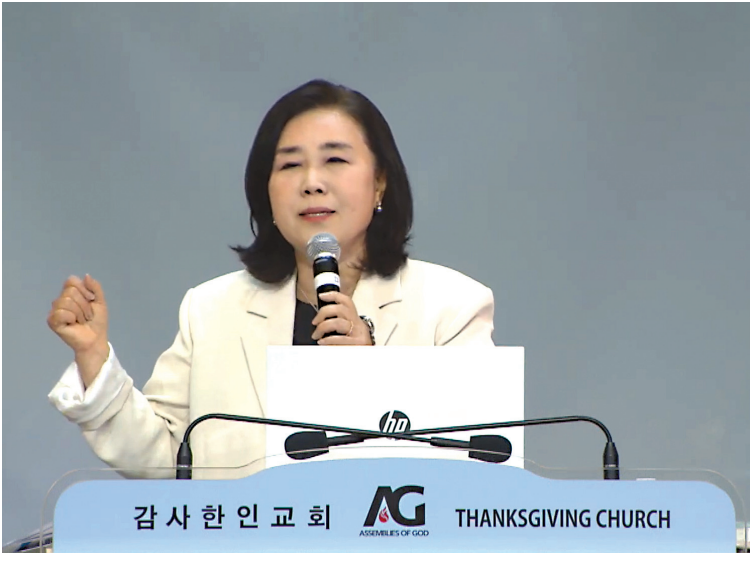
“내게 일어났던 아픔도 그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

인간에게 많은 상처가 있어 특히 어린시절 아픔들 많아 부정적 감정이 밀려올 때 더 좋은 생각, 감정, 행동 선택해야

지난 10일~11일(금~토)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는 이영숙 박사(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Good Tree Mission University 총장)을 초청해 <행복한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막힌 담을 풀어내는 비결>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영숙 박사는 히브리서 12:15절의 ‘쓴 뿌리’란, “어렸을 때 경험한 사건들로부터 받은 상처”라고 해석한 후, 이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우울한 부모, 강압적 부모, 집착적 부모가 되며, 성인이 된 후 이상 증상으로 발현된다는, 그가 한국에서 설립해 운영했던 학교에서 만난 한 학생의 사례를 나누었다.

“4학년 아이가 자꾸 죽고 싶다고 했다. 글 쓰는 시간에, ‘사후의 세계를 매일 매일 꿈꾼다. 가만히 있으면 죽고 싶은 생각을 한다’라고 글을 써서 발견되었다. 너무 놀라서 그 아이의 엄마를 불렀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도 늘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상담하며 들어 보니 남편이 너무나 악랄하게 이 여인이 정말 그만 살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상담을 하며, ‘다시는 나한



지난 10일~11일(금~토) 감사한인교회는 이영숙 박사(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Good Tree Mission University 총장)을 초청해 <행복한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감사한인교회

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하고 살 수 없어요”라고 말하라고 했지만 그 어머니는 남편이 자신을 떠날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당신의 그 우울함과 슬픔이 지금 자꾸 자녀에게 흘러 내려가서 4학년 아이가 자살하고 싶다는데 그래도 좋으냐고 하니,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못하는지 물었는데, 엄마가 얘기를 했다. 사실은 자기 오빠가 청각 장애인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키우면서 어린 시절부터, ‘너는 날 지 말아야 될 딸을 낳은 거야.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가 태

어난 거야.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을 도와야 할 거 같아서 너를 낳은 거야. 너는 평생 오빠를 부양해야 해, 공부를 잘 해도, ‘남지 않아야 할 년을 낳았는데 뭘 그렇게 잘하려 그래’라고 하셨다. 이 딸은 자기를 외면하는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며 성장했다. 엄마에게 받았던 그 패턴이 너무 익숙해서 남편이 학대하고 하찮게 대하는 것을 참고 사는 게 익숙한 것이다. 이것이 쓴 뿌리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없애라고 하신다.”

그는, 자신과 그의 자녀가 경험한 상처와 그것을 극복한 비결을 나누며, 그것을 감사, 용서 구

하기, 요청, 표현의 앞 글자를 따, TAPE(Thank you, Apologize, Please, Express)라고 설명했다.

“우리 아이를 변화시킨 비밀은, 존재에 대한 감사였다. ‘내 아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내 남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내 아들이 되어서 너무 고맙다’, ‘내 딸이 되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여기서부터 관계 맺기는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감사이다.”

“두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요청해야 한다.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얘기할 때 내 관계가 풀어진다.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표현해야 할지 모른다.”

그는 어린 때 받은 수치심과 상처로 인해, 어린 아이가 내면에 웅크리고 울고 있다며, 햇빛을 비추면 곰팡이가 사라지듯, 우리 안에 감춰둔 아픔을 표현하고 이야기할 때 상처가 더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쓴 뿌리가 온전한 생각, 온전한 감정, 온전한 행동을 못 하게 막고 있다. 외롭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슬퍼해야 한다. 인간은 많은 상처가 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아픔들이 엄청 많다. 이것을 긍정

의 법칙으로 이겨 나가야 한다. ‘그런 일을 당한 것만도 속상한데, 내가 지금 그것을 감춘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긍정의 법칙이다.”

“부정적 마음이 밀려 올 때,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내가 계속 우울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 더 좋은 감정을 갖고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 성품은 선택이다.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우울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나의 성품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저는 성품 치유를 하며 함께 나눠 보니까 모든 인생에는 고통이 있으며,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이다.”

두번째 세미나가 열린 11일 이영숙 박사는 자녀의 기질을 참석자들이 직접 테스트 하도록 한 후 각 기질별 특징과 양육 방법, 각 기질에 따른 재능에 대해 강의했다.

주디 한 기자

은혜한인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부흥집회



은혜한인교회는 창립 42주년을 맞아 이수훈 목사(당진 동일교회)초청 부흥집회를 연다.

창립 42주년을 맞아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가 오는 5월 16일(목)부터 19일(주일)까지 총산 당진 동일교회 담임 이수훈 목사 초청해 비전센터 본당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이수훈 목사가 목회하는 당진 동일교회는 출산장려 운동을 펼쳐, 인구 17만 도시에서, 5천 명 성도들 가운데 2천명 이상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된, 평균 연령 29세로 성장해 한국교회에 모

델이 되어 주었다. 지난해 이수훈 목사는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의 강사로 나서 ‘저출산 문제 해법의 모든 것을 말한다’는 주제로 교회의 현장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19일(주일)에는 주일 3부 예배에서 창립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일정: 5/17(금) 오후 7:30**
5/18(토) 오전 6:00, 오후 7:30
5/19(주일) 1부 7:30, 대예배 11:00
문의: (714)446-1000

더블레싱교회 5/19 창립 감사예배



피세원 목사가 개척한 더블레싱교회(The Blessing Church)가 오는 5월 19일(일) 오후 4시 창립감사예배를 드린다. 더블레싱교회는 2024년1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

장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으며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예배, 교육, 선교, 훈련, 섬김’이 5가지 핵심가치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주소: 530 N. Dale Ave., Anaheim, CA 92801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무료 상담** **(213)210-3651**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 Dlee@proverbs318law.com



가정의달, 5월 Special

VIP Signature

VIP만의 특별한 시그니처 케어로 피부를 되살리세요!

VIP
시그니처 얼굴관리

10회
~~\$1,200~~ → **\$999**

림프마사지
+
택1)LED, LDM, Hydropeel

VIP
프리미엄 얼굴관리

10회
~~\$1,600~~ → **\$1,299**

림프 팔사 마사지
+
택2)O2toDerm, LDM, Hydropeel,
Cryocell, Hydrogen Care

VIP
여드름 얼굴관리

6회
~~\$1,200~~ → **\$999**

여드름 압출
+
택2)O2toDerm, LED, Hydropeel,
LDM, RF, Cryocell,
Hydrogen Care

VIP Body Care

다가오는 여름이 무섭지 않게~

인모드 슬림 바디 케어 관리

지방 관리 + 얼굴관리 3회

~~\$4,500~~ → **\$2,500 /10회**



Skin Booster

즉각적인 피부고민의
효과를 원한다면!

엑소솜
피부 나이를 되돌리고 싶다면
3 treatments
~~\$2,400~~ → **\$1,500**

리쥘란
피부 탄력 회복이 고민이라면
3 treatments
~~\$1,800~~ → **\$1,200**

자가혈
빠른 피부재생을 원한다면
1 treatment
~~\$2,400~~ → **\$1,800**

쥬베룩
매끄러운 피부를 원한다면
1 treatment
~~\$600~~ → **\$400**

샤넬주사
칙칙한 피부색을 돌리고 싶다면
1 treatment
~~\$1,200~~ → **\$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지긋지긋한 피부고민은 이제 VIP 에서 해결하세요 | 예약 ONLY!



무료 상담 714-649-6586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C, Garden Grove, CA 92843

좁 성경공부, 알고보니 신천지 포교

성경을 깊이 알고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성경공부가 알고 보니 신천지 포교를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고, 지난 5월 3일 나성영 라코교회에서 열린 신천지 예방 세미나에서 신천지 탈퇴자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신천지 예방 세미나가 5월 3일 (금) 오후 7시 30분에 엘에이에 위치한 나성영라코교회(박은성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 세미나의 강사로 선 에스라 김 목사(Finally Free 국제 선교회의 대표)는 미주 신천지의 현황 및 포교 방법, 신천지의 핵심 교리,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그림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과 이단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에스라 김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의를 마쳤다.

이날 세미나에는 두 명의 신천지 성경공부 탈퇴자들이 간증했다. 첫 번째로 간증한 탈퇴자는 친구 만들기 앱인 'Hey Vina'를 통해 성경을 공부할 친구를 찾던 중 자신의 이름을 신시아라고 밝히며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크리스천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적어 놓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좁으로 진행되는 성경공부에 참여했고, 자신의 남자 친구와 또 다른 친구를 성경공부에 초청했다. 당시 그들은 그 모임이 신천지에서 주최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물론, 그녀는 신시아에게 성경공부를 주최하는 교회 이름을 물어보았지만, 신시아는 초교과 교단이라고만 소개했다.

"성경공부는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2시간씩 이어졌으며 말씀을

배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참여했다. 성경공부에 참석한 학생들은 모두 기도 파트너가 있었는데, 저는 제 파트너에게 기도 제목과 고민,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 전부 이야기했다."

"수 개월 후 성경공부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고, 기도 시간에는 모니터 앞에서 모두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등 점점 강도 높은 규칙들도 생겨났다. 그들은 '이긴자', '약속의 목자', '시온산'과 같은 새로운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성경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긴자'는 '새요한'이며 그 '새요한'이 오늘날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와 남자친구는 인터넷에서 '새요한'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보았고 '새요한'이자 '이긴자' 또는 '약속의 목자'라고 불리는 인물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친구들과 함께 탈퇴했다. 알고보니, 기도 파트너들은 모두 진짜 학생인 척하며 새 학생들을 신천지 신도가 되게 돕고 있던 LA 신천지 신도들이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학생들은 개인적인 모든 내용과 정보들을 그들에게 기도제목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전달한 것이다.

두번째 간증자로 나선 탈퇴자는 앞서 간증자한 탈퇴자의 권유로 함께 그 성경공부에 참여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새요한"이라는 용어를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사해 보았고 그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탈퇴했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와 친구들을 온갖 거짓말과 조작으로 기만한 신천지를 생각하면, 매일 매일 신천지의 거짓말 포교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크

리스천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신천지는 재림한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의 몸 속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 꼭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학생과 청년 및 영어권 성인들 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들과 부모님들도 함께 참석하여 놀라움과 탄식으로 에스라 김 목사의 강의와 탈퇴자들의 간증을 경청했다. 한 참석자는 "신천지가 한인 2세대와 외국인들까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포교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 특히 2세와 대학생들, 청년들이 이러한 내용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나눴다.

에스라 김 목사는 "신천지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교, 동방번개 등 한국과 아시아에서 온 사이비 단체들이 계속해서 미국과 전세계의 한인 2세대와 현지인들을 포교하는 이 시점에, 한인 교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미주의 대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포교하는 만큼, 적어도 고등학교 12학년부서는 반드시 이단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천지 이단 예방 세미나 (한국어 또는 영어)를 원하는 교회나 단체, 가족이 이단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에스라 김 목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에스라 김 목사 714-683-9894 (Finally Free 국제 선교회 대표,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장, 생명의 바람 교회 담임목사)

첫번째 간증을 나누는 탈퇴자의 간증은 Finally Free 국제 선교회가 운영하는 Free of Shincheonji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복음 전하는 책임을 다하자는데 보수와 진보가 합의"

→ 1면 기사 "UMC 한인총회 '변화 있었지만'에 이어서

이들은 "하지만, (목회자와 교회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함께 통과된 것은 환영하는 바"라며 "지역화를 통해 UMC가 각 지역과 인종의 상황에 맞는 사역과 선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UMC의 미래적인 방향이라고 결정한 만큼, 한인연합감리교회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사역과 선교방향을 위해 우리의 전통적인 입장과 성경중심적 신앙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에서 확인했듯이,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이번 동성애 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강요도 받을 수 없고, 우리들의 신앙을 확고히 밝힐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에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자치권을 획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인연합감리교회 중에 몇 교회는 이번 주에 교회의 입장을 밝히고 동시에 동성애를 반대함과 전통적인 신앙과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교회 정관을 만들어 공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동성애 안수자 허용이라고 일제히 보도된 이번 UMC 총회의 결정은 '동성애자는 안수를 금지한다'는 조항만

빠졌는지, 동성애자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은 아니"라면서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미연방정부의 법안에 따라 교회도 성소수자들의 성적취향을 묻지 않고 이 부분을 블라인드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동성애라고 알려진 한국교회와 한인공동체의 단어선택은 실제로 미국 내의 동성애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선입관을 제공하게 된다"며 "그러므로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안수자격을 물을 때 이를 고려치 않겠다는 의미에 더 무게가 있다"고 했다.

한인총회는 "그럼에도 이 변화를 통해 동성애자의 목사안수의 자격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변화에 더불어 한인교회와 같은 다른 인종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역차별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차별을 UMC와 총회 그리고 회원들이 인지했다"며 "개정안이 발의 된 것은 이런 역차별을 보호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UMC 안에 있는 교회와 인종들을 배려하고, UMC라는 큰 울타리 안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어도 이제는 이런 묵은 논쟁에서 자유로워져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본래의 책임을 다하자는데 보수와 진보가 함께 마음을

모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선교사 가정 후원 CMF 사랑의 콘서트

제14회 선교사 가정을 돕기 위한 "CMF 사랑의 콘서트"가 CMF 사랑의 콘서트"는 오는 5월 18일(토) 오후 5시 오펜지카운티 제일 장로교회(김종규 목사)에서 개최

된다. Charis Christian Chamber와 소프라노 이효정, 배우는 자매가 출연한다. 주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문의: 714-733-3566, 714-733-3566

목회와 선교를 위한 AI 활용 강의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가 목회와 선교를 위한 AI 활용 강의가 준비했다.

정보센터는 YouTube 다국어 자막 활용 방법 및 AI Voice Generator를 활용해 다국어 동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계획했다.

강의는 현장 및 Zoom Syn 강의로 진행되며 강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녹화 강의도 제공된다.

캘리포니아 OC 지역은 5월 21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6-9시, LA 지역은 5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6시-9시까지 10주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300불이다.

강의를 진행하는 제임스 구 교수

는 "지난 AI 활용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 및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보이셔서 실무 중심의 정규 교육과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각 교회 혹은 선교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YouTube 생방송 및 영상을 전세계 언어로 변환해 세계 선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구 교수는 신학교 및 경영 대학교에서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미디어 및 IT, 경영 및 회계학 교수 사역과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

가로 활동 중에 있다. 현재 구 교수는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와 그레이스글로벌비전스쿨(Grace Global Vision School) 대표로 교육을 통한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다.

공개 강의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정보센터 웹사이트(churchhomepage.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churchhomepage.org 이메일 icmm@churchhomepage.org 전화: 714-393-4595(ICMM Center) 상담전화 949-667-0264(J. Lee, JDSN) (문자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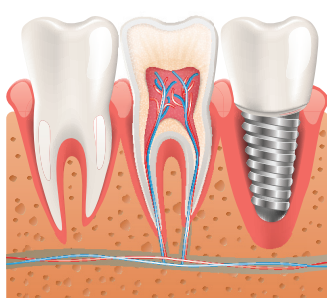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터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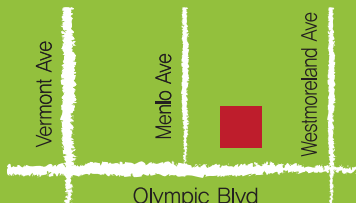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터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모든 예배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일 교역자 오전 9: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곽찬훈 담임목사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Los Angeles One Church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e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모임(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회 저녁 7: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린이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정응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어린이주일학교 화요일성경공부 토요일기도회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토요일기도회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목요일예배 토요일예배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어린이주일학교 화요일성경공부 토요일기도회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김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fice@gmail.com



주일예배 성경공부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새벽기도회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성경공부 주일 아침기도회(온라인) 기도모임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주일학교 & Youth 금요일성경공부 청년부 수요일(온라인)새벽기도회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최추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목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나눔 코이 모임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주일성경공부 수요일기도회

조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주일예배 주일학교 금요일성경공부 목요일성경공부 목요일성경공부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

김홍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주일예배 3부 주중예배 목요일예배

오홍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토요일예배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sgc@gmail.com



“신학은 목회 뒷받침, 목회는 신학 돈독히 해야”

이정의 목사가 4년간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직을 마치고 오는 5월 24일 퇴임한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하면서 교단 총회장과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CBS 재단이사장을 지내는 등 교단을 넘어 한국 교계에서 굵직한 족적을 이어온 목회자가 현장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위해 세워진 신학교육 기관의 총장에 부임하자 목회와 신학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를 모았었다.



이정의 목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제6대 총장). ©송경호 기자

-먼저 총장직을 마치고 물러나는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교단 신학교가 아닌 초교과 신학교여서 모집도 쉽지 않은데다, 규모도 크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지원자도 늘어났고, 숫자가 많진 않지만 개교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학교가 어렵다 보니 임기를 채우지 못한 총장들도 있었는데, 무사히 마치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학생 수급이 안 되니 등록금도 부족했고 외부에서 기부도 적었어요. 하지만 학생이 채워지니 기본 재정이 확보됐고, 학교가 안정되면서 기부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하나 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게나마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교역자들은 헌신하려 하지 않고, 교단 신대원들도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고무적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위해 설립된 교육 기관으로, 각 교단 신학교에서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지원자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교과라는 특성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점은 교단 지원이 약한 것이겠지요. 교단에서 집중적으로 오는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장점은 학과를 신설하고 새롭게 만드는 데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교수들과 총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목회 분야가 다방면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실천신학뿐 아니라 현장에서는 여러 배움이 필요해요. 이를테면 사회학을 가미한 목회나 사회적 안목을 넓혀주는 과목 등 필요에 따라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어 굉장히 큰 장점이지요. 그렇게 특별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 교육 현장 경험 후, 한국신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나요.

“신학은 목회를 뒷받침하고, 목회는 신학을 돈독히 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신학적 기초가 좀 짱아요. 신학교를 나온 뒤 목회하다 보면, 신앙 연구가 별로 깊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이 목회자들을 뒷받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목회하는 데 큰 힘과 배경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따로 놀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의 가르침이 목회 현장에 얼마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묻고 싶어요.

신학생들을 모두 신학자로 기르려 해선 안 됩니다. 신학생이 100명이라면, 딱딱한 10명 정도는 계속 신학을 공부하겠지만 나머지는 나가서 목회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될 이들에게는 목회에 기반한 신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신학자를 양육하는 수준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왔을 때, 신학자도 목회자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가 됩니다. 신학을 계속할 10%를 위한 교육이 전체 학생들에게 이뤄진다면 잘못된 거죠. 신학교가 새롭게 정립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은 나머지 90%가 희생하는 구조입니다. 목회자로서 신학교 총장을 하다 보니 더 절실해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교수들에게는 자주 전공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학생들이 여기 왜 왔는지를 이해하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힘을 주고 갱신시키고 흐려진 초점을 새롭게 갖게 해서,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코로나 이후 새로운 환경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무엇

을 배우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 목회는 단순해요.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했던 목회를 다 버리고 새롭게 하려 할 필요도 없어요. 변한 건 없습니다. 방법론이 약간 바뀐 것뿐이에요. 메시지도 그대로이고 목회의 패턴도 같아요.”

코로나 전과 후를 구분해서,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 현장을 벗어나서 바라보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이 ‘전도’를 포기해 버린 점입니다. 요즘에는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고, 전도해도 먹이지 않는다면, 전도를 포기해 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데미지입니다. 전도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마 미래에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즘 전도가 안 된다면, 그것은 상업화됐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목적이 ‘자리 채우기’로 전락한 거예요. 사람을 채워야 부흥하고, 그래야 빛도 밝고, 교회도 짓고, 다른 교회보다 커져야 부흥하고 내가 성공자가 되니까요. 전도가 상업화·수단화되니, 성도들이 전도하라고 해도 안 하죠. 목적이 뻘해 보이잖아요.

전도는 사람 채우기 위한 게 아닌데, 전도해서 다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전도의 원래 목적대로 하면 회심도 하는데, 지금은 연예인 데려와서 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해 반짝 하다 보니 행사가 끝나면 더 줄어요. 전도가 타락한 것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전도하면 전도자가 영적으로 살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도 부흥하죠. 이것이 목회자다운 것이고, 코로나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해야 할 것은 없나요.

“코로나 전에는 우리 메시지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성장시키고 영적인 면을 채워주는 데 부족했다면, 이제 그걸 채워줘야죠. 이런 목회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목회에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가미했다면, 이제 순수함과 회심, 영성 같은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최고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은퇴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목회 동안 제 설교가 인간적이지 않았는지, 목회도 방법론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설교하면서 영상을 띄우고 하면 설교의 본질이 자주 흐려져요. 그러니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정설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목회하신다면 무엇을 보완하고 싶으신가요.

“전도를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담임목사가 전도하라고 설교한다 해서, 전도하지 않아요. 목사가 교육시켜서 직접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목사가 시범을 보이면, 그때 성도들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100명 중 한 명 정도 반응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왜 하나는데, 전도의 목적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100명을 전도했는데 1명이라도 회심했다면, 100명을 만나느라 수고한 건 다 잊어버립니다. 한 명을 얻었을 때, 전도자도 영적 성숙이 일어납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전도대원들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 전도하는 것입니다.(계속) 이대용 기자

신간 <손에 잡히는 크리스천 행복론>

6월 2일 출판 감사예배, 미주평안서

월드웨어 USA 대표인 강태광 목사가 최근에 행복 칼럼을 정리한 신간 <손에 잡히는 크리스천 행복론>을 출간하고, 오는 6월 2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에서 출판 감사예배를 드리고 오후 7시에는 연합 선교 음악회를 연다.

중남미 저 개발국(이이티 수리남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학원사업을 통한 어린이 교육 선교와 국제 재난(우크라이나 전쟁, 과테말라지진, 인도네시아 쓰나미) 지원 및 구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태광 대표의 틈틈이 글을 쓰며 다수의 책을 저술했다.

“성경이 행복학의 교과서”라고 주장하는 저자는 고대 그리스 및 로마 철학자들의 행복론, 성 어거스틴의 행복론을 비롯해 성경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메시지를 살펴봄과 다양한 각도에서 행복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지금까지 인문학 책들을 발간하여 그 수익금으로 어린이 교육 선교를 지원한 저자는 이번 신간 <손에 잡히는 크리스천의 행복론>은 약소국 극빈 지역 불우 어린이 지원을 위해 내어 놓았다.

저자는 “세상에 넘치는 것이 책이다. 저의 책 한권을 더 발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 책이 장애우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지역에 하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된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신간



강태광 목사의 신간 <손에 잡히는 크리스천 행복론> 판매 수익금은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극빈지역 장애우 아동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출판의 의미를 정리했다.

이 책 출간에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노창수 목사(남가주 사랑의교회), 민종기 목사(KCMUSA 이사장), 신승훈 목사(LA주님의영광교회) 등 여러 기독교계 인사들도 추천사를 남겼다.

현금, 후원금 책 판매 수익금, 음악회 티켓 판매 등을 통해 얻는 모든 수익금 전액을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극빈지역 장애우 아동들을 돕는 기금으로 보낸다.

극빈지역에서 중증 장애를 앓으며 고통스럽게 사는 생명들과 그 가정들과 그 지역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한 행사다. 김민선 기자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5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파키스탄 법원 “납치된 기독교인 소녀 강제 결혼 무효”



©ADF International

파키스탄 가정법원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납치된 기독교인 소녀 리하 살림(Reeha Saleem)의 강제 결혼에 대해 최근 무효 판결을 내렸다.

현지 파트너를 통해 그녀의 변호를 맡은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2019년 납치 당시 17세 학생이었던 리하(Reeha)는 ‘결혼증명서 서명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법원은 그녀가 납치범 무함마드 압바스(Muhammad Abbas)와 자의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 차례 통지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압바스는 권력 재판을 받았다.

리하의 시련은 압바스에게 강제로 끌려가 그녀가 결코 동의하지 않은 결혼과 개종을 강요당하면서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재확인했으며, 이슬람으로 개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리하의 어머니 파빈 살림(Parveen Saleem)은 “이 기간 우리는 ‘아내를 돌려 달라’고 가족을 위협하는 납치범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숨어 지내야 하는 등 현안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리하의 교육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법원의 판결에 깊은 안도감을 표시했다.

그녀는 “딸이 학업을 재개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변호를 맡아 준 수메라 샤피크(Sumera Shafique) 변호사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ADF의 테미나 아로라(Tehmina Arora) 아시아 담당 이사는 “어떤 소녀도 납치와 강제 결혼의 공포를 겪거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강제 결혼과 개종을 막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최소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해야 한다”며 제도적 변화를 촉구했다.

현재 파키스탄에서 강제 결혼은 샤리아 법으로 승인된다. 이 법은 사춘기 때 결혼을 허용하며, 종종 결혼 가능 연령을 국가의 공식 제한인 16~18세보다 낮게 설정한다. 아로라는 “이러한 강제 개종과 결혼은 종종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두려워하여 납치범을 비판하지 못하는 젊은 여성들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대가 만연한 파키스탄에서는 정부가 통일된 결혼 연령과 기타 법적 보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했다.

지역 단체인 파키스탄 연대와 평화 운동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파키스탄의 힌두교 및 기독교 공동체에서 수백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납치를 당한 후 강제 결혼 및 개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혜진 기자

UNRWA 직원, 팔레스타인 구호물품 훔쳐 내다 팔아... ‘부패 만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 기구인 ‘유엔워치’(UN Watch)가 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구(UNRWA) 직원이 운영 중인 대화방의 게시물을 지난 8일 공개했다. 하이탐 알-사예드가 올린 이 게시물에는 현재 UNRWA 직원들이 인도적 지원 물품을 훔쳐 내다 팔거나, 집에 비축해두고 있다는 내용이 폭로되었다.

유엔워치에 따르면, 알-사예드는 UNRWA 학교에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인하는 지도를 숨긴 해당 기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2016년에 해고되었다. 그러나 알-사예드는 해고된 이후에도 여전히 고위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들이 UNRWA에 대한 불만을 그와 공유하고 있다고 유엔워치는 전했다. UNRWA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다수의 직원들이 가담했거나 테러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자 미국을 포함한 최대 16개국이 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올해 1월 6일, 알 사예드는 UNRWA 긴급 대피소 직원이 그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유했다. 이 직원은 “외부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들은 식량과 비식량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신 보급품들이 밤에 배급되어 우리 눈앞에서 판매된다”고 전했다. 익명의 UNRWA 직원은 누군가가 대피소에서 경유를 훔친 후, 수개월 동안 학교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 직원은 “도둑이 적발되어 교장에게 보고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화방 그룹 멤버인 이자트 샤타트 박사는 한 학교 이사가 UNRWA 학

교에 배포되는 50개의 식품 상자를 가져와 이를 상인에게 100달러에 해당하는 350세켈에 상인에게 팔았다고 보고했다. 2월 20일의 메시지에서 또 다른 UNRWA 직원인 모하메드 무사 알-사왈히는 기관 직원들이 구호품을 훔치고, 자신과 가족들의 집에 비축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대피소에 있는 직원의 80%가 도덕성과 존엄성 있는 태도가 없다”면서 한 교장의 가족 구성원이 구호품을 훔치는 모습이 동영상에 찍혔다고 주장했다. 3월 1일에 ‘디마 디마’라는 한 그룹 채팅 멤버는 “UNRWA 학교 내 센터 원장들, 특히 라파 사립 여자 초등학교 B의 학교장들은 언제 식량과 이재민의 필요물품을 훔치는 것을 멈출 것인가?”라고 썼다. UNRWA는 보도 시점까지 CP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전에 UNRWA 기금의 최대 기여국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지난 7일, 브라이언 마스트(공화·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과 조시 곳하이머(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은 UNRWA에 제공된 연방 기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마스트 의원은 성명에서 “너무 오랫동안 UNRWA는 구호 기구로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보급원 역할을 해왔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UNRWA 직원 중 무려 10%가 하마스 및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디스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UNRWA 사무총장 필립 라자니는 대부분의 기부국들이 지원을 재개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관은 민간인 기부로만 최소 1억 15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새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2세대)을 섬기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새움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부예배 오후 11:30 교육관 18층
주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OMC 중보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n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애호가 삼아 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러닝: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일기도회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714)853-4030(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세(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길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UCE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구제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제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교회 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창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장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몰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생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품있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학교부)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혜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명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美 복음주의 대학, 동성훈 옹호했던 교수 해고



미국 인디애나주 위노나 레이크에 위치한 그레이스칼리지의 전경. ©그레이스 칼리지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한 사립 복음주의 대학이 과거 소셜미디어에 동성결혼과 성중립적 대명사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교수를 해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위노나 레이크 소재 그레이스칼리지(Grace College)는 최근 커뮤니티 케이션학과 교수인 매튜 워너(Matthew Warner)를 해고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초부터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대학 측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릴리전뉴스서비스(Religion News Service)는 “보수 인플루언서들과 그레이스칼리지의 이해 관계자들이 먼저 온라인 해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워너 교수가 대학에서 근무하기 전 성소수자 문제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캠페인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의 진보적 견해를 드러내면서 발생했다. 대학 측은 “그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워너 박사의 앞날에 행운을 빈다.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학 대변인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워너 교수가 올해까지 계약을 이행했다”며 “모든 인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이상의 언급을 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워너 박사는 과거 인쇄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과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리버티대학에서 공개 연설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웨인주립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다. 1948년에 설립된 그레이스칼리지는 ‘은혜형제교회협회’(Fellowship of Grace Brethren Churches)에 소속돼 있으며, 지난해 가을학기 위노나 레이크 캠퍼스에는 1,3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웹사이트에는 “이 기관의 모든 수업은 믿음이 통합돼 있으며,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르친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성경을 궁극적인 진리로 가르친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론적 관점에서 과학에 접근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기술자들이 세상을 바꾸도록 격려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10월 학교 졸업생 에반 킬고어(Evan Kilgore)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레이스의 친구와 가족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워너 교수가 과거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킬고어는 워너 교수가 성별 대명사를 ‘그/그들’로 정의하고,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를 ‘편협하다’고 비난했으며, ‘우오크’(woke)에 대한 반대가 흑인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여러 트윗을 캡처해서 올렸다.

킬고어는 “우익의 정치적 견해에 관해 명백히 급진화된 이데올로기적 증오를 이렇게 강하게 지닌 교수가,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편견 없는 기독교 신학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레이스의 교수가 알려줘야 한다고 믿는 유산인가?”라고 물었다. 강혜진 기자

예언사역 회고한 베니 힌 목사 “가장 후회되는 두 가지는…”

미국의 유명 TV 전도자 베니 힌(Benny Hinn) 목사가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큰 후회로 “정확하지 않거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예언을 하고, “번영 신학”을 장려한 것을 꼽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베니 힌 목사는 최근 ‘스트랜리포트’의 진행자 스테픈 스트랭(Stephen Strang)과의 인터뷰에서 “사역에서 가장 후회하는 두 가지는 예언이 여러 번 너무 현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적의 치유) 십자가군에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의 예언은 실제 예언이 아니었다”며 “이로 인해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내 명성에도 해를 끼쳤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구원의 경계를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가끔은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말했다”라며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모두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이는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돌아가서 고치고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내가 한 몇 가지 예언들은 정확하지 않았거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가 완벽하겠는가?”라고 시인했다.

올해로 71세인 힌은 “물론 그런 점에 대해 사람들에게 용서해 구한다. 나는 그저 사람이며 그런 실수를 범했다”라며 “아마도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이 실수한 순간에만 집중한다면 슬픈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힌은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로 ‘번영 신학’(prosperity theology)을 꼽았다. 이스라엘 출신이자 미국과 캐나다 이중 국적자인 그는 가장 유명한 번영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왔다. 이 신학은 하나님이 신자가 적극적인 신앙과 십일조 및 헌금을 신실하게 바치면, 건강과 부로 보답하신다고 가르친다.

그는 “그것은 내게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간단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역은 성장했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것 같다”며 “누구도 탓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벗어날지 모른다”고 했다. 힌 목사가 자신의 과거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9월에도 그는 번영 신학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이 “너무 견착을 수 없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하며, 남은 사역 기간 동안 ‘건강과 부의 신학’이 아닌 ‘전도와 복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이 지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있을까? 다음 2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할까? 그것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라며 “내 인생의 다음 15~20년 동안, 내 메시지가 십자가임을 확실히 하고 싶다. 그것이 내 삶에 대한 진정한 부르심”이라고 말했다. 힌은 “저는 그것(십자가 복음)으로 알려지고 싶다. 번영의 교사로 알려지고 싶지 않다”면서 “번영은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번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 하지만 번영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속임수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것은 멈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마이클 유세프 “천국은 먼 미래 현실 아닌 현재적 진리”



마이클 유세프 목사.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마이클 유세프(Michael Youssef) 목사가 천국에 대한 일반적인 신화를 비판하고 사후 세계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조명했다. 그는 “교회가 사후에 발생하는 일에 관해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사도교회의 유세프 목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천국의 전체적 개념에 대해 너무 많은 혼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교회 안에도 이 사실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그것이 나쁜 징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천국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매우 분명하다. 성경에는 천국과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다”고 했다.

다면 삶을 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습이기 때문이다. 천국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 소년과 소녀들이 있을 것이다. 천국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영원히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의 책의 중심에는 천국이 단지 먼 미래의 현실이 아닌 성도들이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진리’라는 성경적 사상이 존재한다. 유세프 목사는 천국에 초점을 맞추면 이 땅에서의 삶이 훼손된다는 개념에 도전했다. 그는 “생각해 보라. 나의 삶과 사역의 동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아’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천국은 지금 우리의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천국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천국이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내 마음의 부담은 ‘천국이 정말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해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위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뉴욕주 의사 조력자살 입법화 추진... 교계와 의료진 반대”

뉴욕에서 의사 조력자살 옹호자들이 이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에게 로비를 펼치고 있는 가톨릭교회와 지역 지도자들, 보건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에서 10년간 의사 조력자살 합법화를 추진해온 ‘컴패션 앤 Choices NY & NJ’ 수석 캠페인 디렉터인 코린스 캐리는 의원들에게 “뉴욕주가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미국의 1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 합류하도록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캐리는 최근 알바니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거의 10년 동안 매년 입법부에 뉴욕의 의료지원법(Medical Aid in Dying Act) 통과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캐리는 “모든 종교적 경향을 지닌 그룹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옹호 연합의 지지가 증가하면서 뉴욕에서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올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낙관론을 표명했다.

A995A와 S2445A는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해 뉴욕주 하원과 뉴욕 상원에서 각각 고려 중인 두 가지 법안이다. 로마 가톨릭 뉴욕 대교구 티모시 돌란 추기경은 “이 법안은 거부되어야 한다”라며 “환자가 의사 조력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반드시 의료 상태 때문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돌란 추기경은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하는 주된 이유가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고 말한다. 주된 이유는 타인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자율성 상실에 대한 불안, 즐거운 활동이 사라질 것에 대한 걱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을 합법화하고 권장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라고 뉴욕데일리 뉴

스에 기고했다. 로크빌 센터 감독인 존 O. 바레스 목사는 제안된 법안에 대한 최근 목회 성명에서 “캐나다와 같이 2016년부터 의사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의원들이 이미 법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자살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옹호자들이 퍼뜨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캐나다에서 보고 있는 디스토피적 악몽과 유사하게 매우 빠르게 확장될 것이다. 캐나다는 2016년 뉴욕 법안과 매우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말기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오타와 판사는 자폐증과 ADHD 진단을 받은 젊은 여성의 부모가 반대했지만 조력자살을 승인했다. 캐나다 법은 우울증, 거식증, 양극성 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 약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2027년 다시 확대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법안에 대한 수년간의 반대 끝에 최근 뉴욕주 의회협회(MSSNY)는 이제 의료지원법(Medical Aid in Dying Act)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MSSNY는 발표문에서 “MSSNY는 의료적 임종 지원법과 같은 법안을 지지하며 의사가 제안된 임종 시 의료적 지원 법안에 설명된 과정과 절차에 참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 마크 S. 콘래드, 아네트 L. 헨슨 등은 정신의학 타임즈(Psychiatric Times)의 논평에서 “의사 조력자살이 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치유자로서 의사의 역할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미국 의학 협회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미경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안 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가톨릭) 오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6: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 396-4441 www.igm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대중부(가미) 오전 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예배(만유)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나성복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대중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종교대중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종교대중부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박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만유) 오후 7:30 한아침년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월례예배 오전 8:00 OC예배 오후 7:30 최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7: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200M)
금요일(만유) 오후 7:45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5014 Riata St., Northridge, CA 91301, (818) 363-5887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견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
Tel. (661) 219-5434 www.sammo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지동근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쉬)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침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정공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교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이병걸 담임목사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박은호 담임목사
화요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 685-2212, / woorigoounchurch.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능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갈비,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솔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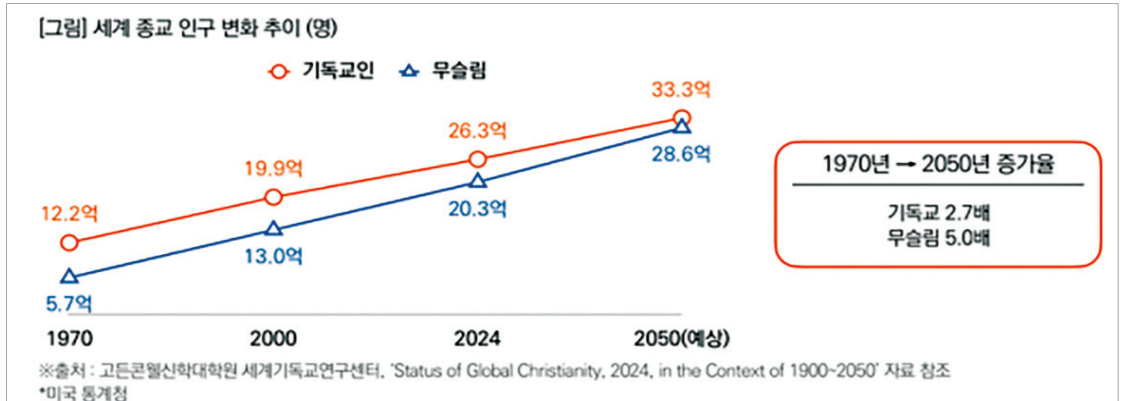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선샤인 비타민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함유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하여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2050년 기독교인 33.3억 명 무슬림 28.6억 명 예상



©목회데이터연구소

세계 기독교와 이슬람의 인구 수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기독교 인구는 앞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크게 증가하는 반면, 유럽과 북미에서는 정체 내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미국 고든콘웰신학대학원 세계기독교연구센터가 과거부터 미래의 기독교 인구를 예측한 자료를 14일 소개했다.

◆ 1970~2050년: 기독교인 2.7배 ↑ 무슬림 5배 ↑

이에 따르면 1970년대 약 12.2억 명이었던 기독교인은 2024년 현재 약 26.3억 명으로 늘어났고, 2050년엔 약 33.3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 무슬림의 증가세는 기독교인보다 더 높다. 1970년 5.7억 명 수준에서 2000년도 13억 명으로 급증한 후 2024년 약 20.3억 명이

됐고, 2050년에는 28.6억 명으로 전망됐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인구 차이는 1970년 약 6.5억 명에서 2050년 약 4.7억 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이 기간 기독교인은 약 2.7배 증가하지만 무슬림은 약 5배가 늘어난다.

◆ 아프리카 기독교인, 1970년 1.4억 → 2050년 12.9억

한편,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5개 대륙의 2050년 기독교 인구는 아프리카가 가장 많은 12.9억 명, 이어 남아메리카 6.8억 명, 아시아 5.9억 명, 유럽 4.9억 명, 북아메리카 2.6억 명 순으로 예측됐다.

1970년부터 2050년까지 대륙별 기독교 인구 증가율에서도 아프리카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프리카는 1970년 1.4억 명 수준에서 2050년 약 12.9억 명이 될 것으로 예측돼, 증가율이 821%였다.

증가율 2위는 아시아로 1970년 1억 명에서 2050년에는 약 5.9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증가율은 490%였다. 남아메리카도 이 기간 증가율은 152%(2.7억 명 → 6.8억 명)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이 속한 북아메리카는 1970년 2.2억 명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보다 더 많았지만, 2000년대 그 수(북아메리카 2.5억 명, 아시아 2.8억 명, 아프리카 3.8억 명)가 역전됐다. 이 대륙의 2050년 예상 기독교 인구는 2.6억 명으로 1970년의 그것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1970년 4.9억 명에서 2000년대 5.6억 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그 수가 거의 그대로 유지됐고, 2050년엔 4.9억 명으로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밖에 목데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독교인의 분포는 북반구 32%, 남반구 68%로 기독교인 3명 중 2명 이상이 남반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영 기자

美 상원의원, 대학졸업식 연설서 "복음에 마음을 두라"



팀 스콧 미국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팀 스콧 페이스북

미국의 팀 스콧(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상원의원이 2024년 리버티 대학(Liberty University) 졸업식 연설에서 담대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졸업식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의 윌리엄스 스타디움에서 열렸으며, 28개의 학위 수여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10일 주요 행사에는 팀 스콧의 원을 비롯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무장관, 돈디 코스틴 리버티 대학 총장, 미국 TV 유명인사인 윌리 로버트슨 등이 연설을 맡았다.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스콧은 연설에 앞서 2만 9천여 명의 졸업생들에게 "오늘 여기 계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해보라"고 권유했다.

스콧은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졸업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을 줄로 믿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셔야 하셨는지 안다면, 우리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칠 것"이라며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 말했다.

올해 58세가 된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 찰스턴에서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어린 시절부터 미국 상원의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는 졸업생들에게 "그만두지 않으면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스콧은 "만일 여러분이 인생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 어서라"며 "그리스도의 품이 대학 캠퍼스에서 미국의 우리 유대인 형제자매들을 위해 일어서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나는 대학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가 암처럼 퍼지는 것을 보는 것에 지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대인 대학살을 용인하고 대량 살인을 요구하는 대학 및 대학교들에게 이제 말해야 할 때이다. 연방 자금 지원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라며 "모든 유대인 학생이 안전하게 강의실로 걸어들어갈 수 있는 것이 권리이다. 모든 유대인 학생이 도서관에서 평화롭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권리이다. 계속해서 증오를 퍼뜨리는 대학들로부터 돈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버티 대학에 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졸업생들에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으라"면서 "당신의 큰 꿈과 믿음의 시험이 어디서

든 누군가를 구해낼 수 있다. 이 자리에 있는 졸업생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해 이 순간까지 인도되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봉사과 희생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자유와 신앙은 신성한 것이며, 수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며 "250년간의 역사를 통틀어 미국은 항상 놀라운 남녀와 그들의 가족들이 이를 위해 희생하고, 싸우고, 심지어 기꺼이 목숨을 바쳐 지탱되어 왔다"고 말했다. 리버티 대학에 따르면, 올해 졸업생 중 2000명 이상이 미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며, 6000명 이상이 군대에 연관되어 있다.

코스틴 총장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계속해서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 그리고 부르실 곳에서 변화를 이뤄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차례이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애쓰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변화를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줄 차례"라며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번영하는 방법에 관해 말할 모든 것이 언제나 최고의 삶의 방식임을 여러분이 증명할 차례이다. 그리스도의 챔피언으로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말했다.

미국 최대의 사냥 도구 제조사인 '덕 캔터'의 CEO이며, 졸업생 중 한 명의 부모인 윌리 로버트슨은 이 졸업식을 "천국의 한 조각"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폐회 기도에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있고, 주를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성취 위에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천국의 한 부분처럼 느껴집니다"라며 "모든 졸업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직업, 경력, 심지어 가족과 같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복음을 말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끝맺었다.

김유진 기자

김선일 칼럼

호스피스에게 주는 혜택

세월이 흐르고 연세가 들면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케어를 받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것이 단기든 장기든 케어를 해야 하는 이들도 케어를 받는 이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장기케어를 받는 시니어들의 경우 자신을 돌봐주는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에다 신경까지 예민해지면서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신을 짐이라 생각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돌봐주는 가족들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들 뿐”이라며 “오히려 가족들의 간호를 감사하게 여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미국이란 사회는 인권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사회입니다. 호스피스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베푸는 최고의 인권 존중의 서비스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호스피스 서비스는 개인이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연방과 주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책임집니다.

단 요구 조건이 되어 하는데 그것은 담당의사 혹은 전문의(스페셜리스트)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혹은 일반 의료 보험 수혜자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과 신분 의료 보험과도 무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매우 간단합니다. 의사 진단서를 갖고 호스피스 의사를 찾든지 그 관계자에게 연락하면 호스피스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 후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무엇을 도와 주는가

호스피스 서비스에는 환자들의 총체임을 맡은 호스피스 닥터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닥터는 그 환자를 마지막 본(진단서를 써 준) 담당의사에게 환자의 그동안의 병력 서류를 받아 본 다음 앞으로 이 환자가 어떻게 치료 받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필요한 조

치들을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 전문의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목욕간호사, 환자에 필요한 모든 의약, 의료기기, 병원용 침대 등.

호스피스 간호사는 R.N. 외에 보조 간호사도 함께 일합니다. 보조간호사는 정기적으로 환자를 찾아가 목욕시키고 잡자리를 편히 만들어 주는 일을 하는데 환자들의 몸상태는 극도로 허약해서 가족들이 목욕시키다가 악화될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합니다.

방문 횟수와 기간은?

일 주일에 두차례 환자의 집을 방문해서 평균 45분 정도 돌봅니다. 환자가 양로병원에 있을 때는 그리로 가는데 서비스 기간은 6개월 이하입니다(단 의사의 처방이나 소견으로 연장가능).

환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

물론입니다. 호스피스 서비스에는 목사나 신부님도 함께 일하는데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환자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이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셜 워커를 통해 재산 정리하는 방법 등도 알려줍니다.(예, 유언 =변호사, 재산 탕진)

한인들의 이용도는 어느 정도인가

미국인들은 말그대로 ‘인간답게’ 지내길 원해서 환자나 가족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원합니다. 한인은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오히려 더 병원치료를 더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병에 걸려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신청하면 환자가 섭섭할 것이라 생각해서 회피합니다. 문화차이라 생각합니다.

한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진정 환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환자보다 가족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크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메디케어나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절대 비용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가 현재 받고 있는 간병 서비스나 소셜혜택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태가 호전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호스피스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이 목적입니다.

글 | 그레이스호스피스 채플린 김선일 목사 (연락처 805-200- 8100).

강태광의 신앙 명시 산책 월드쉐어 USA

밤 기도 - 김남조

밤 기도 (김남조)

하루의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슬이 먼 데서 돌아오는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 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지어다

이시(詩)는 2023년 10월 10일에 소성한 김남조 시인의 <밤기도>라는 시입니다. 천주교 신자이지만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로부터도 사랑받는 신앙 시인입니다. 많은 신앙시를 남겼는데 여기 소개되는 <밤기도>는 일상의 삶을 노래하는 시인의 대표작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김남조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는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루를 주님 앞에서 정리하는 신앙인의 밤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하루를 마감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는 신앙인의 감성을 소개합니다. 신앙인의 하루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신앙인의 저녁을 그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긴 표현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시인은 하루를 감사로 정리하며 주르르 흘리는 벅찬 감사의 눈물을 “천지도 아득한 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이런 눈물을 주님께 바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날마다의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라고 표현합니다. 하루를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심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은혜를 알고 흘리는 눈물을 ‘천지가 아득해지는 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이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일상의

영성이고 기록입니다. 이 밤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밤 기도는 평화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이런 기도와 눈물이 남은 생애 가운데 지속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주께 바치며 살아지어다’라며 눈물에 젖은 밤기도를 소원하고, 또 결심하고 있습니다. 어느 거룩한 하룻밤의 기도가 아니라 사는 날 동안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삶을 노래합니다.

이 시를 읽으며 하루하루를 감사의 눈물로 마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는 영적 감수성을 사모합니다. 이런 기도의 눈물이 살아 있는 날들 가운데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주께 바치며 살아지어다’ 오늘 밤도 눈물 한 주름을 바치는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남조 시인은 1927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1948년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재학 중 연합신문에 시 ‘잔상’, 서울대 시보에 시 ‘성수’ 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시인은 <목숨>, <사랑초서> <바람세례> <귀중한 오늘> 등 다수의 시집을 출간하며 사랑을 노래하였습니다. 사랑을 근간으로 삶을 향한 따뜻한 시선(視線)을 시에 담아내는 시인 김남조는 평론가와 독자로부터 ‘사랑의 시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마산고등학교와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고 성균관대학교 강사를 거쳐 1954년부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김남조 시인은 10대에 폐결핵에 걸리며 신앙을 갖게 되었고 종교 조각 분야의 거장 김세중(1928~1986) 교수와 결혼했습니다. 시인은 많은 은혜로운 신앙시를 남겼습니다. 시인은 아름다운 신앙시를 쓰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시인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더 정교한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싶은 소원을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인생 후반기에 자신이 직접 가려 뽑은 85여 편의 신앙시들을 모아 엮은 신앙시집 <기도>를 펴냈습니다.



강태광 목사(WorldShare USA 대표, 시인)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뒹누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찬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기능성 건강신발
발명 특허 획득
2024. 1.24

통증없이, 가볍하게
걸어보자! 뛰어보자!



건강한 몸을 만드는 **기적의 신발!!**

체험사례

- “허리통증과 왼쪽 골반, 무릎, 종아리가 고질적으로 아파서 너무 고생했는데 이젠 신발 신고 너무 좋아요”
- “왼발을 질질 끄는데 이 신발 신자마자 그냥 걷고 있습니다”
- “스트로크로 2개월간 병원에 있다가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이 신발 신고 지팡이 버리고 갑니다”
- “족저근막염으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엄청 힘든데 이젠 괜찮아요”
- “무지외반증으로 고생하는데 이 신발신고 교정해 발이 편해졌어요”
- “하루종일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젠 안 피곤해요”

신발이 발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망가진 발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변형된 발은 신체의 근육과 관절, 골반, 척추 등 기타 통증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5월 가정의 달 구매고객
감사 경품이벤트**

You Tube 기적신발TV
www.jgpamerica.com



**예약
접수**

**신는 순간부터 허리에 강한 힘을 주고
신체 균형을 잡아주면서 신체를 교정합니다.**

발을 알고 **신발**을 신으면 더욱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
예약 안내
구입 문의

올림픽 갤러리아 3층
푸드코트 옆

(213)330-6810

3250 W. Olympic Blvd. #304 LA, CA 90006

강준민 칼럼

모자람의 문제가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모국 집회를 마치고 제가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새생명비전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이른 새벽에 깨어 요한복음 2장의 가나혼인잔치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결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놀라운 역설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요 2:11).

모든 문제가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 인생을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기적을 창조

하는 재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로 반응할 때 문제가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알려 드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요 2:3).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현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통해 문제가 기적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무에게나 찾아가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자원을 가진 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문제는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붙잡는 순간, 우리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문제 해결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책을 가까이서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책을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

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속에 해결책의 씨앗을 담아 두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책을 가까이에 두십니다. 예수님은 가까이에 있는 돌 항아리 여섯 개를 통해 기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에 있는 물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에 있는 하인들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가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요 2:5).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넷째, 문제가 변장된 축복임을 믿을 때 문

제가 기적이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문제 때문에 긴장하게 됩니다. 문제 때문에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문제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문제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것들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 때문에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위해 발견한 자원들을 보십시오. 빈 돌 항아리 여섯 개, 물,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인적 자원에 해당합니다. 문제 때문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창조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문제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큰 문제에 직면한 분이 있다면 큰 문제가 큰 기적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작은 문제에 직면한 분이 있다면 작은 문제가 작은 기적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한요 칼럼

겸손이 교만보다 강함입니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대학교 시절, 기숙사에서 함께 살았던 룸메이트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4명이 학교 체육관 앞에 있는 원 베드룸 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모두가 진실한 크리스천들이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룸메이트 중 하나인 스티브는 자기 아버지가 보스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스턴 가면 자기 아버지

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해 여름 마침 제가 다니던 모 교회 청년들이 청교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수양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필라델피아에서 보스턴으로 여행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인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보스턴에 가서 룸메이트 스티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교회 영접실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룻밤을 자면서, 아버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목사님이 미래의 목회 지망생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함을 느낄 때, 주눅이 들지 말고, 강해져라. 그러나, 그 강함은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강해지면 교만해집니다. 힘을 스스로 가졌다고 하는 순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교만으로 망합니다.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했

습니다(잠 16:18). 그래서 목회를 지망하는 저에게 머리가 하얀 백인 목사님(그때 저는 그분이 당시 레이건 대통령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이 당부하신 '겸손이 교만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잊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인간의 힘으로 강해지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 원수들과 싸웠다고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고, 크리스천들이 숫자를 모아, 이슬람과 싸웠던 힘자랑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교회의 힘은 교만의 숫자가 아닙니다. 나의 힘은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힘의 규함이 아닙니다. 겸손히 낮아짐이 진정한 힘입니



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고전 10:12).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은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얼마전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자녀가 박사이고, 어머니는 학교 근처도 못갔다고 해도, 자녀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녀가 하늘 높은 권좌에 있다고 해도, 어머니에게는 뒷자리를 내드리고 내려앉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미성대학교,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월드미션대학교, 복음대학교, GATEWAY SEMINAR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zusa Pacific Seminary, 글로벌침례신학교,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TS 신학대학원



넘치는 사랑 감사입니다

언제나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오래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소중한 나의 부모님의 건강은 크고 튼튼한
서울 메디칼 그룹의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한인 의료진들이
30년 이상의 노하우로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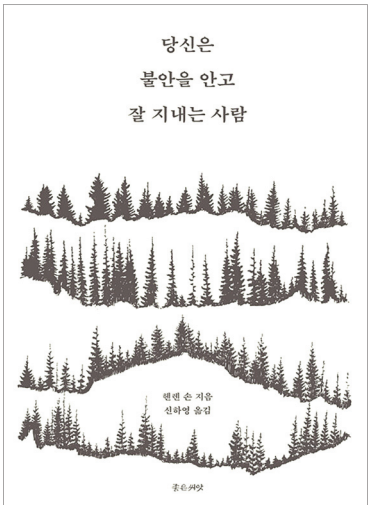
Seoul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하나님을 안고 잘 지내는 사람

여전히 불안하지만, 잘 지내는 사람들의 비결



당신은 불안을 안고 잘 지내는 사람

헬렌 손 | 신하영 역 | 좋은씨앗 | 144쪽 | 12,000원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불안 문제를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책이다. 저자는 불안의 뿌리,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어떻게 불안에 직면했을 때 희망과 회복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책의 내용은 불안의 원인, 증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불안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한다. 저자는 개인적인 일화, 성경적 지혜, 실용적인 조언을 결합하여 독자들에게 불안을 극복하고 기독교 신앙 특히 성경 말씀에서 희망을 찾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제목이 독특하다. <당신은 불안을 안고 잘 지내는 사람>. 원제는 'Hope in an Anxious World'으로, 직역하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소망' 정도 될 것이다. 무난한 책 제목을 독특한 제목으로 바꾼 이유는 책 저자인 헬렌 손(Helen Thorne, 한국 발음 '손'이 아니라 'Thorne, 톰'에 가까운 '손')이 책을 통해, 우리 모두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불안을 안고 잘 지낼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말하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저자는 불안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는 마술 같은 비법을 약속하지 않는다.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진리를 소개한다. 그녀는 특별히 거짓을 통해 진리를 제시하는데, '나는 철저히 혼자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등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짓말들을 성경의 진리로 맞대응한다. 저자 헬렌 손은 영국 성경적 상담 기관 담당이사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겪는 불안과 염려를 비롯한 많은 문제를 성경의 풍성한 진리로 해결하도록 돕고,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애쓰는 일을 한다. 책 <당신은 불안을 안고 잘 지내는 사람>은 국내에 소개된 헬렌의 첫 책이다. 아직 번역되지 않았지만 2023년 쓴 책 《Mental Health and Your Church》 등 여러 상담 관련 책을 저술했다.

확실히 저자는 성경적 상담학 분야 인사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동료인 것 같다. 크리스토퍼 애쉬, 팀 레인 등의 추천을 받았다. 그녀가 추천한 불안을 다루는 책 중 유명한 성경적 상담학 교수인 에드 웰치의 책도 발견할 수 있다.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분된다. 첫째로 저자는 우리가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주목한다(제목부터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An

Anxious World). 다음으로 불안을 주는 거짓과 직면할 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을 다룬다(제목 '불안을 안고 잘 지냅니다', Hope in the Face of Anxiety's Lies).

저자는 자신이 "평생 불안을 겪어왔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22쪽). 압박감에 따른 심한 두통, 쓸데없는 대처 방식과 그것으로 급하게 도망친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털어놓는다. 그리고 저자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선포한다. 불안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그래서 불안으로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 불안 가운데 고통받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만드는 요인은 굉장히 많고 복잡하지만, 궁극적 원인은 단순하다.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해 부패한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더러운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빚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우리는 깨어진 몸과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삶을 살아간다. 세상에서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제안한다: 호흡법, 운동과 휴식, 철저한 계획과 개선된 삶의 방식, 약물 및 상담 치료 등.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의 전부라면, 소망은 없다.

저자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한다.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미 성취되기 시작한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한다. 모든 불안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문제 가운데 계시어서 돌보고 계시는 데도,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기를 바란다.

인생의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도, 마귀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존재라고 믿기를 바란다. 능력 주시는 아버지 안



©픽사베이

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겁준다. 우리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아버지가 계시도, 겪는 모든 어려움이 자기 잘못의 결과라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항상 소망이 있는데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게 한다. 에덴동산에서 거짓으로 사람을 불안한 세상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을 극심한 불안으로 몰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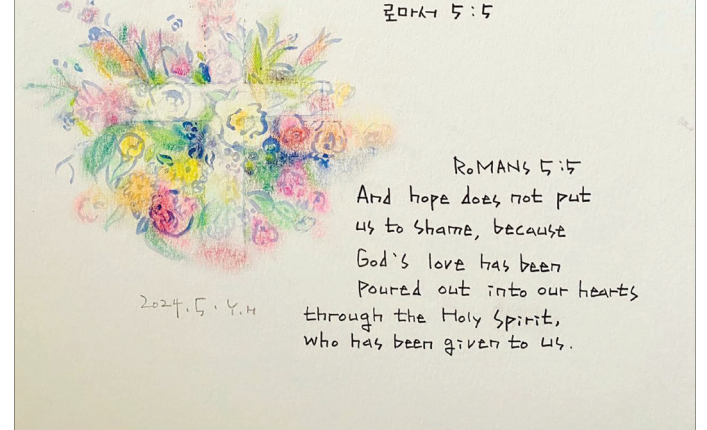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모든 불안함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그 가운데 아버지께 관한

신뢰와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소망을 품어야 한다. 저자가 거짓-진리의 구도로 내용을 전개한 것은 참 유익하다. 우리는 내부, 세상, 이웃, 마귀로부터 들려오는 불안한 음성을 물리치고,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헬렌 손의 책 <당신은 불안을 안고 잘 지내는 사람>을 통하여, 깨어진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믿고 잘 지내기를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5



ROMANS 5:5
And hope does not put us to shame, because God's love has been poured out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has been given to us.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특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부목사 청빙

캘리포니아 LA 동부 Chino Hills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실 Full-time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www.sunhanchurch.com

1. 지원 자격
 - 1) ECO (복음연합장로교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ww.eco-pres.org) 교단에 속해 있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 3) 현 거주지가 미국이고,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필요시 종교비자 지원 가능)
 - 4) 장년부 사역 유경험자
2. 모집분야
 - 1) 풀타임 부목사 (1명)
3. 제출서류 (PDF file로 제출요함)
 - 1)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 미국에서의 자신의 법적 신분 명시(예: 영주권자)
 - 2) 자기소개서 1부 (신앙고백 및 간증문, 사역 및 일반 경력, 은사, 가족소개 및 사진)
 - 3) 최근 1년 이내 실교 영상(2편): 유튜브 링크
 - 4) 추천인 2명 이름과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 추천인 1명은 현(최근) 사역교회 담임목사, 다른 추천인 1명은 이전 사역교회 담임목사이여야 함) -추천서는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추천인에게 본 교회에서 직접 연락함.
 - 5) 신학대학원(M.Div) 졸업 및 성적증명서, 대학교와 대학원(해당되는 분)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각 사본 1부
4. 지원 및 문의
 - 1) 이메일 resume@sunhanchurch.com로 문의 및 지원해 주세요. 이메일로만 문의/접수를 받습니다.
 - 2) 접수마감 : 2024년 6월 5일까지(청빙 완료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4)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5) 최종후보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선한목자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범죄도시 4> (2)

천만 돌파 <범죄도시 4> 속, 배타적 외국 문화 방어기제



강력한 흥행력을 가진 통쾌한 형사극, <범죄도시> 시리즈 주인공 마석도(마동석).

우리와 함께 생활하려는 외국인들 후진국 사람들에 차별적 시선 여전 혼혈이나 국제결혼 극단 거부감도 교회에서도 대다수 아웃사이더 돼

◆한국 영화 속의 외국: 외국인과 해외 문화에 방어적인 대중문화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에 등장하는 한국 근처의 '해외'는 대개 무법천지, 범죄의 온상으로 그려진다. 영화에 등장하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치는 중국 동북3성은, 빈곤한 조선계 중국인들이 모여사는 후진국 거주지의 이미지를 덧입는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유명 관광지들이 있고, 그래서 환락이 제공되고, 그 환락 이면에 온갖 범죄조직이 꼬여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영화의 중심 서사가 범죄자를 '때려잡는' 형사의 활극이다 보니, 등장하는 배경지가 범죄의 온상으로 그려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영화 <친구>에서 부산은 학교폭력과 조직폭력의 해방구처럼 그려지고, 해외에서도 <배트맨> 시리즈를 보면 뉴욕 등 미국 대도시들이 구제 불가능한 범죄자들의 왕국처럼 묘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도시>의 해외 묘사는 우리 한국 사회에 널리 만연된 특정한 편견을 명료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친구>나 <배트맨> 시리즈와는 다르게 반성할 거리를 제공한다.

영화 <친구>나 <배트맨> 시리즈는 각각 자국의 범죄에 대한 문제를 되짚어보는 사회의식을 반영한다. 반면 <범죄도시> 서사는 한국 범죄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범죄의 뿌리 혹은 범죄가 활성화 되는 원인이나 계기는 모두 주로 한국 근처 해외, 그것도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지에 자리잡고 있다.

예외가 있다면 <범죄도시> 3편인데, 여기서는 일본 야쿠자 조직이 범죄의 크기를 키우는 원흉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다. 일본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아직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선진국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대중의 뿌리 깊은 역사적 반감에 힘입어, 불법과 범죄가 판을 치는 해외 국가 가운데 하나로 묘사되고 있다. <범죄도시>의 해외 묘사 방식은 한국인들의 뿌리 깊은 민족적·국가적 폐쇄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영화 속에 묘사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대중에게 각광을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 한국인들 다수가 외국인과 외국 문화의 한국 유입에 대해 상당한 불만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도시> 4편의 개봉 직전 1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파묘>를 봐도, 이런 불안감은 그대로 드러난다. 과거 해외와 얽혀 오랫동안 좋은 꼴을 보지 못했던 약소국민의 심리적 방어기제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남아서 망령처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내 영화나 방송계, 심지어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외국인들의 모습 모두 실질적으로는 우리 문화의 틀 안에서 새롭게 조형된 외국인들 뿐이다.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하고 한국 대중문화와 요리에 폭 빠진 외국인들이 우리가 반겨야 할 외국인들로 묘사된다. 막상 그들이 자신들 고유의 언어와 문화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면 관객 혹은 시청자들의 무관심과 반감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정신적 문제다. 특히 단일 민족이라는 허구적 이념이 깨지고, 다민족·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더욱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외국인 대량 유입으로 인한 치

안과 안보 문제를 걱정하는 심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미 우리 사회 현실은 더 이상 '단일 민족'이라는 관념으로 치안 및 안보 문제를 대처해 나갈 만큼 문화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단일화되어 있지 않다.

◆한국 사회 속의 외국: 시대착오적 민족적 배타성이 만연해 있는 한국 사회

단적인 예로, 최근 급증하는 국제결혼 비율을 생각해 보자. 작년(2023년) 국내 총 혼인 건수 가운데 8.9%인 1만 7천 건이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이었다. 이는 2022년보다 4천 건 증가한 숫자이고, 올해는 그 증가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혼인한 이들 모두가 한국에서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들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는 혼혈 한국인으로 향후 우리 사회의 한 주축을 이룰 것이다. 이전에는 농촌 쪽에 다문화 가정의 주로 집중돼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도시 지역에도 다문화 가정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정 기간 근로를 마치고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해 나가는 우리 동반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든 사회적 인식으로든 우리 사회에 유입되는 외국인들과 외국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가장 장기체류 비자를 받기 어려운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북한에서 파견하는 간첩의 국내 침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외국인, 특히 선진국 아닌 나라 국민들의 국내 장기체류를 엄격하게 통제했다. 냉전 종식으로 이런 분위기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이후 주로 중국인들의 밀수 및 불법체류 문제가 심해지면서 외국인의 장기체류는 재차 강력하게 통제되기 시작했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공정한 평등한 처우를 보장한다. 하지만 법의 이상과는 다르게 한국의 외국인 대상 출입국 및 체류 관리 행정체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배타성이 강한 축에 속한다. 안보와 치안을 목적으로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통제 강도가 사회적 현실을 간과하는 수준으로 과도한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이런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느냐고 자문한다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다.

현재 4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관리가 온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고, 나아가 정상적 방법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려는 이들에 대한 공정한 체류 심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특정 정치단체의 집권 목적이나 기업들의 비용 절감 목적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관리 기준이 이리저리 뒤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의 사회적 인식이 과연 선량하고 정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려는 외국인들을 올바르게 대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앞선다.

한국교회는 어떨까?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국교회는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들과 재한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 및 봉사에 앞장서온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포용적인 목회활동이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들에 의해 힘있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 주로 자유주의 신학 성향의 개교회 목회자들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커다란 아쉬움을 갖는다.

한국 대형교회 내부를 보면 대부분 오랜 기간 사역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온 소위 '이너서클'이 가진 지배력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이런 이너서클을 이루는 이들 대다수는 주로 나이 50대 이상의 장년 및 노년층 교역자들과 장로, 집사들이다. 이들 대다수는 외국인 혹은 혼혈 한국인 신자의 유입에 대해 언어적으로든 아니면 정서적으로든 목회적인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잠시 발을 들인 외국인 혹은 혼혈 한국인 신자들 다수는 아웃사이더로 걸들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기 마련이다. 성급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결혼이민과 혼혈 자녀들에 대한 인식마저 배타적 차별의 정서가 지배하는 현 상황은 비정상적이다. 여기에 더해 아예 '토종' 한국인이 멸종해 가는 인구구조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엿보이는 해외에 대한 배타적 인식은 우리 사회가 가진 심각한 정서적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도처에서 이런 민족적 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여러 목회자들을 배출한 공로가 있다. 다만 재한 외국인과 혼혈 한국인 대상 목회활동이 여전히 한국교회 목회의 중점적 요소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 한국으로의 결혼 이민이나 외국인들의 국내 장기체류 기조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여기에 더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기조로 인해 한국 전체 인구 가운데 토종 한국인의 비율은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한민족, 한국인 중심의 자기중심적이면서도 방어적인 세계관을 고집하는 주류 대중문화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전문

ADU 전문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K-Urban Builders Inc.

Lic#854389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미국 실천적 기독교인, 인공지능에 더 회의적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실천적 기독교인과 성경을 자주 읽는 신자들이 대중보다 인공지능(AI)에 대해 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는 2024년 '미국 성경 현황 보고서'의 두 번째 편을 지난 9일에 발표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신앙과 기술'을 주제로, AI가 신앙 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AI가 도덕적 추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58%), "AI 사용이 나의 영적 실천을 촉진하고 영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68%), "AI가 목사나 신부, 성직자만큼 설교를 잘 작성할 수 있다"(57%) 등에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인의 과반수(51%)는 "AI 사용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할 것"에 동의했다.

응답자들은 "AI 사용이 성경적 가르침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각각 40%가 동의하거나 불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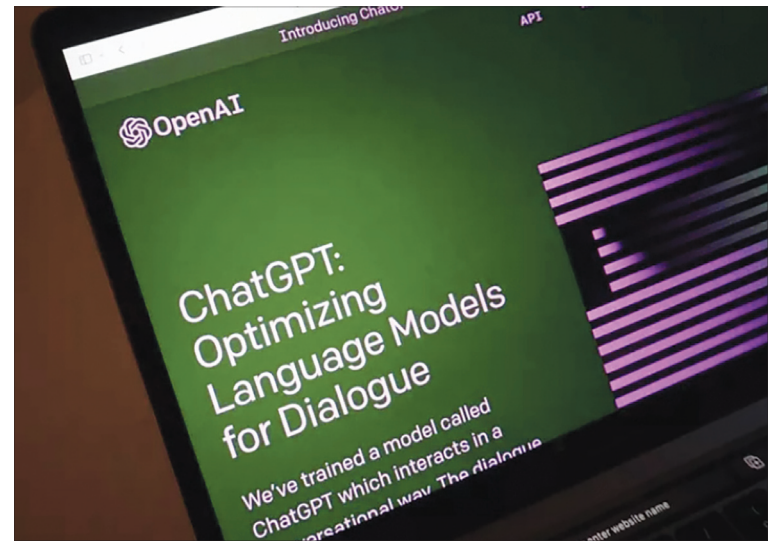
고 답변했다. 유사하게도, 조사 대상자의 37%는 "AI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미래의 이익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또 다른 37%는 AI의 미래의 이익이 "불확실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9%는 "AI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더 크다"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응답했으며, "설교나 강해 개발에 AI를 사용하는 목사나 신부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성경을 자주 읽는' 응답자들은 미국인 전체보다 AI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성경을 자주 읽는 응답자를 성경 참여 척도에서 10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 척도는 교회 및 교회 행사 외에 1년에 3~4회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14개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측정했다. 1~5점 척도에서 5점은 해당 문장에 강한 동의를, 1점은 그와 반대를 나타낸다. 전체 응답

자들은 "우리 세계가 AI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이익에 대해 낙관적이다"라는 문장에 대해 평균 2.8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들은 평균 2.5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들은 "AI가 도덕적 추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평균 2.3점을, 성경을 자주 읽는 응답자들은 평균 2.0점을 주었다. 성경을 자주 읽는 응답자들은 "AI 활용이 나의 영적 수행을 높이고 영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평균 1.8점으로, 전체 평균인 2.0점보다 약간 낮았다. 또한 "AI가 목사, 신부, 성직자만큼 설교를 잘 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들은 평균 1.9점으로, 전체 동의 수준(2.3점)보다 낮았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들은 다른 미국인들보다 AI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더 동의했다. 이들은 "AI 사용은 성경적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신념에 대해



챗GPT. ©Unsplash/Rolf van Root

평균 3.1점으로, 전체 미국인 평균(2.7점)보다 높았다. 또한 성경을 자주 읽는 응답자들은(3.4점) 전체 미국인(3.1점)보다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보다 크다"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들은(3.7점) 전체 미국 대중(3.5점)보다 "AI 사용으

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에 더 동의했다. 또한 "설교나 강해를 발전시키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목사나 신부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라는 문장에 동의한 비율도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들이 평균 3.5점으로, 전체 대중 평균인 3.1점보다 더 높았다.

김유진 기자

'선택받은 자' 예수 역 배우 대학 졸업 연설 "예수께 순종하라"



예수 영화 <선택받은 자>의 한 장면. ©Lionsgate

예수 역을 맡았던 미국의 한 배우가 가톨릭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인생의 다음 여정을 시작할 때 항상 그분을 대표하고 그분께 순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선택받은 자'(The Chosen) 시리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역을 맡은 조나단 루미(Jonathan Roumie)가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가톨릭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했다. 그는 연설에서 자

신의 경력을 되돌아보며 "예수 역을 하면서 배운 세 가지 간단한 교훈"을 공유했다. 그는 "세상을 향한 예수가 되기 위해 세상을 위한 예수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라면서 "TV 쇼에서 예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카메라가 꺼졌을 때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깨달았다"라고 했다. 그는 졸업생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역을 맡은 배우

가 아니거나 신부나 수녀가 아니라 해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분을 대표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명을 위해 기도하라"고 격려했다. 그는 "세상을 향한 예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하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지구상의 단 한 사람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분의 삶, 행동과 선택, 정치적 입장, 옹호하는 대의명분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모든 단계에서 생명을 수호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입장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적이 혼돈과 공포의 불길을 더 높이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길을 끄고 성령에 따라 행동하는 평화를 제공하고 우리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예수님의 위도와 지혜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여러분에게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정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면서 "특히 반응하기

가 너무 쉬운 디지털 시대에는 자제심을 지침으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예수님 역할을 하기 전 먼저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며 "더 많이 기도하라"고 독려했다.

이어 "예수님과 동행이 더 깊고 강렬해진 만큼 영적인 공격도 심했다. '새로운 단계에는 새로운 악마'라는 말이 자주 떠오른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깊은 기도의 혁명,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침묵과 고독의 혁명을 요구한다"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언급했다. 그는 "상황이 정말 어려워질 때 판도를 바꾸는 세가지 즉 기도, 금식, 회개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부담이 되거나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는 단식을 하고, 한 프레임씩 찍기 전 내 인생에서 부족했던 모든 면을 살펴본다"라고 했다. 루미는 예수 연기를 통해 얻은 명성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라고 자주 물었다고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께 부르시고, 그분을 섬기고 본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람과 수단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고 결심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성공이 시작될 것"이라며 "굴복하라"고 격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그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완벽한지 알고 싶나?"라며 물으며 "제 삶을 변화시킨 절대적 행복의 경험은 6년 전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라고 했다. 루미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회상했다. 그는 "내 인생의 대부분 나의 성장과 몰락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내 자신을 쏟아부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 '당신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연기하거나 예술을 떠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행복 후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해본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지만 내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미경 기자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01

안구건강 루테인지아잔틴 EYE HEALTH LUTEIN ZEAXANTHIN

루테인지아잔틴 복합비타민,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C, 아연, 구리, 셀레늄

건강기능식품 500mg x 30캡슐(15g)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간은밀크씨슬 HANMI MILK THISTLE

간기능개선 1000mg x 30캡슐(30g)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03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LUTEIN EYE OMEGA3 PREMIUM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높은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J1 M MART Healthy Life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원하트미니스트리 10주년 기념 찬양집회

마커스워십

X

원하트워십

“JesUS | 예수 우리와 함께”

5.31.금 / 7:30PM |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6.01.토 / 6:00PM |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6.02.일 / 6:00PM | 에브리데이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집회후원티켓 \$15

온라인구매처
oneheart-usa.com

오프라인구매처
GBC 미주복음방송, 기독교일보
남가주사랑의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이요한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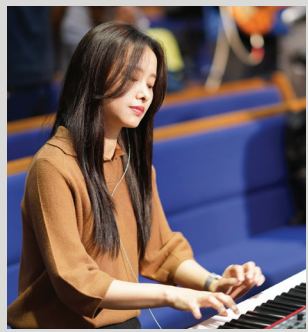
샌디에고 주사랑교회 담임목사
예수전도단(YWAM) 서울 화요모임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박사 (2012)



박은미 / 마커스워십 보컬, 작사작곡

대표곡

주가 주되심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주만 의지해, 그 안에 나 개해네, 예수로 사는 인생,
내 삶 드리리, 믿음으로 나아가네, 대단한 믿음 없어도



권미성 / 마커스워십 메인건반, 작곡

감사가넘치는 교회 메인 건반

대표곡

기꺼이 주께, 귀어진 삶을 주께,
이유 있음을 믿네, 예수가 이어지길



심종호 인도자

마커스워십 예배인도자
감사가넘치는교회 찬양사

대표곡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생명의 빛, 이곳에서

ONEHEART MINISTRY X MW

[문의] (213)347-5080 | lynnkimoneheart@gmail.com